

만남

2020 새해를 맞아하며

01

2020
통권 55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 지금



2019년 12월 15일과 22일 양일간 봉사관 앞에서는 생명대각성운동 천 명 달성을 기념하여 성도들을 대상으로 헌혈행사가 있었다. 생명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고귀함을 느낄 수 있었다. 12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는 생명대각성운동 기간 동안 천 명 이상의 교회 방문자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교우가 함께 모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사진 원종석 기자

표지설명



눈 내리는 교회당을 바라보면
마음이 설레이며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사진 이상현 집사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4대 목표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교회표어

이 때를 위함이라(에스더 4:13~14)

만남

CONTENTS

이달의 말씀 신년메시지

이 때를 위함이라! | 김운성 02

영락칼럼 2020 새해를 맞이하며

신앙인 됨의 길 | 임성빈 06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현대인의 정체성 찾기 | 이준영 08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지도자 | 이노하 10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통일의 소식을... | 윤길영 12

영락의 율타리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영락교회 소그룹 | 이용희 13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네가 하라” | 이재향 16

겨울철 구강관리 | 김보라 18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으면 | 장한수 21

전도할 때마다 함께하는 성령님 | 김순혜 22

2020 월별 암송 구절 23

평생대학 취미활동반 화보 | 이재향 24

아침의 우물가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 | 이미나 26

노숙인에게 뽀뽀하고 평평 | 황정숙 28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 김혜자 30

삶에서 체험하는 전도의 기쁨 | 정선화 32

문화광장

사랑으로 눈을 뜨는 훈련 | 권혁일 34

시각장애를 이겨낸 찬송가의 어머니 | 박신화 38

가롯 유다, 배반자 | 박정관 41

1월 영락문화공간 42

교회소식

새가족 환영, 세례·입교 43

영락교회 창립 74주년 행사 등 외 48

영락역사자료 57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59

1월 목회력 / 편집장 레터 60

2020년 1월호 통권 552호

발행 2020. 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장덕진 김경옥

이미혜 임대현 최윤미 서지원

장창일 이준영 윤진경 우대권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김 은 성 위임목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0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깰 때마다 아침 햇살처럼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의 문을 열게 되길 원합니다. 또 하루하루를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갈 거룩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길 빕니다. 365 페이지 짜리 두툽한 시간의 노트에 멋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교육, 왕성한 복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교제와 봉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양한 내·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지난해 우리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라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표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은 부흥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영적 역동성이야말로 교회에 절실한 요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조직, 제도 및 시설이 없었지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님의 강림 이후 성령님의 각종 은사와 능력으로 그들은 무장했습니다. 그것은 담대한 복음 전도와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났고,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영락교회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양육훈련부와 전도부를 신설했고, 새가족부 목회자를 전담목회자로 세웠습니

다. 저는 부임하던 2018년도에 십여 주간에 걸쳐서 제자도에 관해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위한 영적 훈련 로드맵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훈련이 2019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전통 구역들이 양육과 교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이기에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성숙을 위해 소그룹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 지역, 관심사 등의 다양한 연결고리들로 이어진 소그룹들이 생겨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새로운 이들을 전도해 양육하길 원합니다. 열 명 안팎으로 구성된 소그룹이 1,000개가 생긴다면 만 명의 성도가 영적 모임을 나누게 되는 일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형교회가 가진 친밀한 교제와 나눔의 한계를 소그룹을 통해 채우길 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 새 가족들이 많이 전도되고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 새가족부에 전담목회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규모라면 한 해에 3천 명 이상의 새 가족은 등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교회 주변에 주택이 없고, 성도님들이 교회로부터 멀리 거주하시는 현실적 약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전도에 소홀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엔 더욱더 많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길 원합니다.

이런 일련의 영적 과제는 그 배후에 영적 부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기도대각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영락 가족 특별새벽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기본으로 하고, 본당과 뽕엘기도실을 기도장소로 정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거나 가정에서 매일 한 시간 기도운동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 모 권사님께서 한 시간도 더 걸리는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아울러 한 줄 간증문을 제출함으로써 성도들 속에 기도 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대각성운동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하반기에는 교회의 2019년 표어대로 생명을 낳는 일로 연결하길 소원했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예배로 초대해 함께 예배함으로써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길 원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의 마음에 닿은 주님의 손길이 언젠가는 그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거두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역시 2020년도에도 지속해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기도대각성과 생명대각성은 동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영락교회를 초기 예루살렘교회처럼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도 개개인과 가정과 삶에,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대각성운동과 생명대각성운동은 일회적 행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주님 재림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성도라 할 수 없고,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안팎의 공격으로 교회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영락교회가 조용한 가

“말씀을 받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운데서도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거룩하게 부흥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흐름 중에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새해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총회의 표어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총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때를 위함이라’는 영락교회의 묵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 우리 모습을 보게 해 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에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처서 부수는 방망이와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에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스더 4장 13~14)

‘이때를 위함이라’는 우리 교회의 2020년 표어는 이런 내용을 반영합니다. 이 표어는 위 에스더 4장 13~14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모르드개와 아각 사람 하만 사이의 일로 촉발된 위기로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왕비인 에스더에게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비록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갈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핑계로 망설였을 때, 위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나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위기를 아하수어로 왕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뿐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왕에게 나아가 동족을 위한 탄원을 올리게 되고, 유대인들은 극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체적 상황에서 말씀에 응답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상황은 그에게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응답하지 않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다면, 그 말씀의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해는 영락교회에 있어서 한경직 목사님 20주기를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상황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하기 위해 노력한 분이십니다. 고아 소녀를 만났을 때 보린원을 시작하셨고, 한국 전쟁 후의 가난한 상황에서는 월드 비전을 만드셨으며, 전쟁 후의 교육을 위해 학교들을 복원하거나 신설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상황에 응답한 행동입니다. 2020년에 우리 모두 작은 한경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처한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때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다가 깬 때가 되었음을 모른 채 계속 자는 사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함에도 모르는 사람, 주인이 도착할 때가 되었음을 모르는 종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우리는 혼란하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해야 하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통일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교 세력이 준동하고,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시대가 옵니다. AI 인

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이런 때를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실천적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구체적 도움을, 복음이 필요한 이에게 전도를,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위로를, 기도가 필요한 이에게 기도를 해 드려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든, 영락교회 차원에서든 잘 응답하길 원합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을 정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결국은 큰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 말씀에 비추어 변화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씩만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봅시다. 연초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분명하게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행복한 영락교회를 이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면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살롬! **만남**

신앙인 됨의 길

지난 시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는 너무 커서 버티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고후 4:1).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고후 4:8~9). 심지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당할 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3~4). 그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임성빈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분명한 소명감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임

“우리는 주님의 사랑·구원 사역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고후 4:7, 메시지바이블).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자기 정체성이 사도 바울을 엄청난 믿음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큰 고난과 역울한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 부닥칠수록 예수님의 생명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2020년을 맞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앞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지식보다는 나름의 열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나의 신앙이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고, 나의 신학이 나의 편견으로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에 전달되지 못하고 소통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가로막는 세상의 골짜기와

산들을 평탄케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구원 사역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가 많고 그러다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때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나의 나 된 것’과 ‘주님의 주 되심’을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의 기도는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오히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영성과 자아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국 교회와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위험과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안의 보배, 예수님의 생명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일을 겪을 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은 기회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만남**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현대인의 정체성 찾기

2020년의 중요 트렌드 키워드는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단어다.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이 이 단어를 심리학 용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인간은 천 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바꾸어 쓰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했다. 인간은 페르소나를 통해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 가며 주변 세계와 상호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이른바 ‘연극학적 정체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연극무대이고, 우리 각자는 스스로 배우라고 본다.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 퍼슨(person)이 페르소나(persona)에 어원을 둔 이유다.



이준영 교수
노원교구
『트렌드코리아 2020』 공저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과거에는 혈통, 가문, 직업 기반의 전통적 정체성이 중요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전통적 정체성은 해체되며 이를 대신하는 다양한 정체성 의식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소비정체성이 있다. 이는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나 소유물에 의해 자기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물질주의적 관점이다.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더욱더 값비싼 물건을 소유해서 자신의 정체성 의식을 고양하기를 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가상정체성 역시 현실의 자아와는 완전히 상이한 방식으로 펼쳐진다. 특히 인간 관계의 온라인화 현상이 심화한다. 온라인의 인간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오프라인에서의 인맥을 ‘실친(실제 친구)’이라고 특별히 일컫기도 한다. 실친보다 ‘페친(페이스북 친구)’, ‘인친(인스타그램 친구)’이 중요해진다. 온라인 친구를 더 신뢰하고 이들의 신념과 견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온라인·SNS 자체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중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SNS를 사용할 때도 그것이 페이스북인지, 인스타그램인지, 트위터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정체성

“우리 정체성의 가장 완벽한 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을 표출한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SNS에서도 부계정, 가계정 등 여러 개의 계정에 서로 다른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마치 중국의 변경 배우가 여러 가면을 돌려가며 바뀔 쓰듯이 현대인들은 시시각각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실제로 많은 Z세대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두 개 이상 만들어 각 계정에 상반되는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입사·취업 시장에서 드러내고 싶은 학구적인 모습이나 직업에 열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서 보여주기도 하며, 익명성을 바탕으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통한 취향 중심의 SNS가 주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취향정체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전통적인 직업정체성을 넘어서 이제 자신의 취미와 취향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하는 누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보디빌딩하는 쿨가이 소방관’, ‘운동하는 치과의사’와 같이 뒤에 있는 ‘누구’라는 직업정체성보다 오히려 앞의 수식어인 ‘~하는’이 더 중요해지는 취향정체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인의 멀티 페르소나는 AI와 알고리즘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동적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신의 취향과 취미를 나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머신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가 끊임없이 나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 사람

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형성시킨다. 취향의 주체가 내가 아닌 기계가 되는 것이다.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취향들을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취향이 기계 즉 머신(machine)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집되고 형성될 수 있다. 계속해서 나의 취향과 사상이 머신에 의해 편향되게 심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시청하는 동영상 앱의 추천 알고리즘도 사상과 이념의 ‘온라인 확증편향’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해졌다. 정체성이 다양화되어 분절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체성 의식이 혼돈되고 해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체성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확고하게 자기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거짓된 자아에 끊임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체성 해체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정체성을 무엇보다 확고히 할 때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가장 완벽한 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이다. 정체성 혼돈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정한 ‘나다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키웁니다

이노하 선교사(V국)



안녕하십니까? 모든 성도님께 인사드립니다.

V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노하(가명)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지 지도자양성 훈련 사역(사진)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DCT 지도자 양성훈련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 사역의 성격과 훈련

지도자양성을 통해 배출된 제자들이 각 현지교회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2년의 훈련과정을 밟아서 리더로서 역량을 갖추고,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비전을 발견해 갑니다.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목회 사역자와 사회경영 지도자로 나뉘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해 갑니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경영 지도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주일예배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 목회 사역을 청빙하여 주일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업장에서 개척한 교회는 현지교단에 등록합니다.

제자훈련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매일 새벽 경건회를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 주중 월~금요일까지 말씀훈련 및 성경과 인품훈련을 받습니다.
- ▶ 주중 사회현장에서 실무를 쌓는 훈련을 합니다.
- ▶ 주일예배를 통해 예배훈련과 교회 성장을 성취해 갑니다.

지도자 양성훈련은 현지교단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제자훈련생 모집에서 훈련과 수료까지 모든 과정을 현지교단과 협력하여 현지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수료자들은 협력 교단에서 실전 사역훈련을 합니다. 현지교단에 훈련된 리더들을 보냄으로써 현지교단의 발전과 건강한 사역을 도모합니다.

현재 3기까지 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4명의 남자 청년이 센터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3기 졸업생 중 한 명은 사회경영 지도자로서 현지여행사를 통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사역의 초기 단계로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있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 가운데 1기 졸업생 2명 중 한 명은 현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오는 3월 한국 장신대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2기 졸업생 2명 중 1명은 현재 카페와 분식점을 운영하며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기 졸업생 5명 중 2명이 창업카페에서 함께 사역하며 차후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센터를 통해 V국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 V국이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

북한의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통일의 소식을...

윤길영 성도
노원교구

설교시간에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일의 삶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를 잘 지키기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과 실생활 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복음통일학교에 참여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답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4주간 진행되는 복음통일학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가 통일을 준비해 오는 과정을 바라볼 수 있었고, 둘째는 저의 인생 처음 경험하는 자유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수많은 통일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복음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당위성과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요건들을 배웠고, 북한의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들으며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태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서 통일에 대



복음통일학교에 함께 참여한 청년부 형제 자매들. 왼쪽 첫번째가 필자 윤길영 성도.

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들에게 복음통일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통일학교에 참여한 소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역시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다' 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통일이라는 문제를 두고 피땀 흘려 준비한 이런 귀한 내용을 복음통일학교를 통해 접한 것이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듣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통일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자친구와 더불어 같은 조 청년들이 있음에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복음통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주변에 잘 전할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락의 성도들이 복음통일학교를 통해 삶의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통일에 대한 정답을 알아가시고,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영락교회 소그룹

- 영락교회 소그룹전담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소개합니다

1. 어제 : 소그룹전담부 탄생

소그룹전담부는 우리 교회 '신앙성장로드맵'에 따라 소그룹 전문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2019년 1월 신설됐으며 선교가 목적인 소그룹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10월 제자 양육훈련부 산하의 단위부서로 독립했습니다.

2. 오늘 : 영락교회 소그룹



이용희 장로
노원교구
소그룹전담부장

① 소그룹 사역 목적과 운영, 리더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 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의 소그룹은 1명의 리더와 12명의 멤버로 최대 13명까지 가능합니다. 소그룹은 탄생·양육(훈련)·성장·재생산(분화) 과정이 선순환할 때 생명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생산(분화)해야 하며 분화되지 않는 소그룹은 해체 또는 소그룹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는 훈련과 겸손함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인격적 기본소양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자격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앙성장로드맵'을 통해 2단계 '양육핵심과정'과 3단계 '소그룹리더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리더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소그룹 현황

현재 우리 교회에는 5개의 중(中)그룹 팀에서 34개의 소그룹, 2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성경통독팀 : '5기 직통반' 등 6개 소그룹 45명
- 성경공부팀 : '세우미양육반' 등 17개 소그룹 95명
- 선교봉사팀 : '선교현장영어' 등 7개 소그룹 60명
- 통합팀 : '영락야구선교회' 등 4개 소그룹 30명
- 청·장년팀 : 청년과 장년 중심의 소그룹 구성 예정

③ 소그룹전담부 사역

소그룹전담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선교하는 소그룹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그룹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교구나 부서, 직분 등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그룹에 등록해 원하는 소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전담부에 신청하시면 소그룹전담부 지도 목사가 교구 또는 부서 목사와 정보를 공유한 후 소그룹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소그룹으로 배치합니다.

소그룹전담부는 2019년에 △소그룹 설명회와 예비 리더 모임(7월 28일), △소그룹 리더 교육(7월~12월, 매월 둘째/마지막 주일), △소그룹 리더 아카데미 특강(11월

소그룹 사역이란

① 목적과 핵심 원리

소그룹 사역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세울 수 있으며, '성도의 영적·인격적 성장'과 '공동체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선교적 사명을 고취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탄생·양육·성장·재생산의 선순환은 소그룹 운영의 핵심 원리입니다.

② 정의

정해진 시간에 3~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위한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며 성장하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자 의도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는 모임입니다.

③ 구성

동일 구성 성격의 동질그룹(예: 부부, 청년, 예능 소그룹 등)과 하고자 하는 일이나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목적그룹(예: 성경통독, 예배, 전도 소그룹 등)으로 구성합니다. 동질그룹인 동시에 목적그룹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23일), △대그룹의 날(12월 8일), △소그룹 책자 『하·감·소(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소그룹)』 발간(12월 15일) 등을 주요 사역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교역자와 소그룹 리더와의 영적 교제를 위한 '소그룹 리더 만남의 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내일 : 2020년 이후 사역 계획

소그룹 개강 및 활성화

2020년 새해에는 2월 23(주일) 개강을 시작으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합니다. 2019년이 소그룹 활동 첫해로 소그룹 개념 알리기에 치중했다면, 새해에는 소그룹의 개념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소그룹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2019년에 2단계 양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성도가 새해에는 소그룹 리더 훈련에 많이 지원하여 실제로 소그룹 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더디게 진행되는 소그룹 사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소그룹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사역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탄생·양육(훈련)·성장의 견고한 기반 위에 재생산(분화)을 발휘하는 소그룹 핵심 원리를 작동함으로써 소그룹이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소그룹 특성을 고려해 온전한 리더가 양육될 수 있는 ‘체험 리더 과정’ 등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소그룹 등록과 구성원 배치와 관련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 장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그룹전담부 봉사자들은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열심과 노력을 발휘해 2023년이면 500개 이상의 소그룹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남**

‘대그룹의 날’ 행사 개최



지난 12월 8일(주일)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대그룹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봉사관 505호에서 진행된 ‘대그룹의 날’ 행사는 소그룹 멤버와 리더, 팀장 및 소그룹전담부 임원, 교역자가 모두 모여 영적 교제를 나누는 행사로 매년 1~2회 진행할 예정이다. 소그룹전담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사는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 감사 예배와 소그룹 리더 수료식 순으로 진행했다. 김충섭 지도목사는 수료한 리더들에게 임명장과 함께 별도로 리더 스티커를 배부하여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준 안수집사(소그룹전담부 차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네가 하라”

- 노원교구 17구역장
윤영희 권사

해가 바뀔 때마다 교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구역장을 세우는 일이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리저리 채워진다면 많은 교역자분들이 미소로 답한다. 구역 식구들 중에 아직 아이가 어린 가정 많거나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아니면 구역 구성원들의 연세들이 높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구역들이 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장소 제공이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구역들도 있다. 같은 구역이지만 많은 연령차이로 인해 구역예배 진행이 어렵다는 고백들도 들린다.

그럼에도 구역 식구 한 명을 위해 요양원까지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보람을 느끼는 구역장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다. 구역 식구들과 계절별로 나들이 하며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도 있다. 매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영적 교제를 통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구역들도 있다. 그렇다. 예전 우리 선배들이 섬기던 구역의 모습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시스템으로 꾸며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리라 믿는다.

이번 호에서는 11교구 17구역 구역장 윤영희 권사를 만났다. 노원

구 하계동에 자리한 영구 임대주택 식구들을 섬기는 윤영희 권사의 첫마디는 “많이 어렵고 힘이 든다”였다. 경제적 곤란함에 놓인 구역식구들도 어렵고, 구역장으로 세워진 본인 역시 건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기자에게 토로한다.

60대 후반인 윤 권사는 4년 전 교구 목사님의 뜻하지 않은 구역장 권유를 받고는 손사래 치기를 수십



2019년 9월 교구 친교의 날 영락기도원에서



2019년 11월 구역원 가정에서 구역예배

번. 그러나 “네가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한 구역장으로서의 섬김은 그리 쉽지는 않은 듯 했다. 유난히 어려운 취약 지역으로, 지체장애, 지적장애, 독거노인, 여러 질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등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있는 것 같다”며 구역을 섬기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11평 정도의 임대주택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구역 식구들을 섬기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넉넉히 채워 줄 수 없어 늘 마음이 아프다는 윤 권사의 모습에서,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윤영희 권사가 섬기는 11교구 17구역은 모두 15세대. 수급자가 10여 가구가 되며 교회의 봉사미를 받는 가구도 9가구가 된다. 그런 와중에도 아들을 목회자로 키우신 분도 있으며, 한푼 두푼 모아 30만원의 거금을 감사헌금으로 드려달라며 구역장을 믿고 맡겨왔던 흐뭇한 일도 있었다며 미소 짓는다. 윤 권사는 오랜 직장생활로 인해 교회 봉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상황이라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 구제 사역을 활발히 행하고 있음을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듯싶다. 교회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목사님과 의논하여 구역의 어려움을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다.

윤영희 권사는 “교회에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특별한 가정을 잘 살피서 조금만 더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내시어 열악한 환경의 성도들에게 지니고 계신 달란트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만남**



평소 치아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겨울철 구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① 겨울철에는 구강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는 것을 예방하려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 과일이나 껌, 비타민 C 등을 섭취, 침샘을 자극해 침의 분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보라 성도
성남·분당교구
의료선교부
치과전문의

- ②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마시면 치아에 자극이 가게 되고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③ 추운 계절이라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오래 착용 시 구강 내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우니 마스크가 축축이 젖을 정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④ 건조한 겨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은 입속을 건조하게 하고 목 질환의 위험도 있으니 구호흡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잇몸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잇몸 관리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치아는 건물이고 치주 조직은 기초라 생각한다면 치아도 중요하지만 치주 조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주 조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잇몸과 치조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젊어서는 잇몸과 치조골이 대부분 튼튼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조골이 흡수되어 어감에 따라 잇몸에서 피도 나고 치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합니다.

잇몸과 치조골이 나빠지는 원인에는 전신 질환, 섭취하는 음식, 치아 형태, 침과 환자의 습관 등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잇몸질환의 원인은 치석입니다.

치석은 치아 표면의 얇은 세균막에 침과 음식물 찌꺼기 등이 뭉쳐져 형성됩니다. 일단 치석이 생기고 나면 칫솔질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해야 하는데 스케일링은 1년에 1번 의료 보험이 되므로 큰 비용 안 들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석이 생긴 후에 스케일링하는 것도 좋지만 치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아는 건물이고 치주 조직은 기초입니다. 마태복음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생각납니다. 잇몸 관리를 잘해 치아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같은 회사의 제품을 써야 같은 성능을 내듯이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하느니라 제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주신 제품을 아끼고 보존하셔서 오래오래 쓰는 것이 제일입니다. 추위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치아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치석입니다. 치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구강 보건 보조 기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유튜브 보기



첫 번째로는 칫솔이 있습니다.

칫솔질 방법은 좌우로 문지르며 닦는 것보다는 아래위로 쓸어내리듯 닦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세밀히 설명되고 있으나 어린이 교육용이라 말이 조금 짧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실이 있습니다.

치실은 아주 좋은 구강 보건 기구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실을 넣어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어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한번은 앞니의 뒷면을 당겨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넣어 뒤쪽으로 밀면서 빼내어 치아의 앞·뒷면의 음식물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간칫솔이 있습니다.

치간칫솔은 이쑤시개처럼 생긴 것에 짧고 가는 솔이 붙어 있는 작은 칫솔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쑤시개처럼 사용해 치아 사이 빈 공간을 닦는 것인데 단순히 치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치아 면을 각각 닦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가지 않는 치간칫솔은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치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사용한 치간칫솔은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치간칫솔 사이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나 침, 피에 미생물이 번식해 다시 사용 시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다시 사용하신다면 깨끗이 세척하여 알코올에 담근 후 다시 물로 헹궈 말려서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워터픽이 있습니다.

워터픽은 다른 보조 기구보다 가격이 비싸 망설여지지만 하나를 구매하면 여러 식구가 쓸 수 있고 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원리는 치아 표면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높은 수압의 물줄기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주무시기 전에 칫솔질 후 하루 한 번 정도로 매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남**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으면

장한수 은퇴장로
서대문·은평교구

어린 시절 내 고향 시골마을에는
새벽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눈을 쓸곤 하셨다
마당은 물론 사립문 앞 고샅길을 지나 한길까지

몇 살 때부터인가
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한길까지 눈을 쓸었다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
한수야아 ~ 사립문까지만 쓸지 그랬냐
“아이고 손이 다 얼었네” 하시며
두 손으로 감싸 녹여주시던 어머니

이곳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게
이곳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이곳에 내려와
얼은 내 손 감싸 녹여주시게



전도할 때마다 함께하는 성령님

퇴직 후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취미 생활을 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은 삶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며 지내던 차에 우연히 병원 전도하시는 권사님을 만난 후 전도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전도하지 못한 일이 평생의 숙제로 남아있는 저로서는 막연히 전도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저 자신의 믿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전도폭발훈련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복음 제시 개요를 암기해야 하는 것이나 훈련생으로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훈련자들의 기도와 격려와 더불어 저 스스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함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는 동안에 둘째 남동생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으나, 주님께서서는 큰집 조카 가정의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를 통해 그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온 가족이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 병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선배 전도자님들을 통해 전도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전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병원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기억에 생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 전도를 배우기 위해 먼저 훈련된 전도자들을 따라다니던 어느 날, 80세가 넘는 권사님이 수고가 많다면 간증을 들어보라며 자신이 체험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제가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경험도 전도하는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하며 전폭훈련을 지속해서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때에 꼭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언제나 밝은 미소와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많은 훈련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저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남**



김순혜 권사
인천교구
화요전도학교 1단계 수료

2020

월별 암송 구절



“성경 암송은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1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2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28)

3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4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린도전서 15:58)

5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1-4)

6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20:7-8)

7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8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50)

9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12)

10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24)

11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7-38)

12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8-9)



2019년 평생대학 취미활동반 작품전시회 & 발표회



10월 27일(주일) 베다니광장 및 기념관 지하 1층에서 개최된 평생대학(지도목사 김정희) 취미 활동반 작품전시회에서 50여 명의 학생이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어 사진, 서예, 드림 스케치, 컴퓨터, 손뜨개 등 작품 100여 점을 출품했다.

11월 20일(수) 베다니홀에서 취미활동반 발표회가 있었다. 김정희 목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시편 121편 1~8절)'이라는 말씀 후, 신중건 전도사의 진행으로 학생과 교사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등 교사의 색소폰 찬조 연주와 은퇴권사회찬양대의

찬조 찬양을 시작으로, 평생대학 찬양대의 찬양, 난타, 실버댄스(초·중급), 하모니카(초·중급), 사물반, 클래식 기타, 오카리나, 아코디언 연주 및 몸 찬양, 취미활동반 합창반의 찬양과 율동 등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이 역시 전문 강사의 지도로 총 3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배움을 통해 즐거움과 건강함을 함께 느끼며 보낸 행복한 1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11월 27일(수) 종강으로 평생대학 학생들은 긴 겨울방학을 맞이했다.

취재·정리 이재향 기자 사진 이미혜·원종석 기자



지휘자 이영주 권사 외 45명의 가을하늘 아래 코스모스를 보는 듯한 드레스의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권사님들 파이팅입니다.



지휘자 송봉혜 권사 외 105명의 대원. 은퇴권사님들의 아름답고 고운 소리의 찬양. 존경합니다.



15명의 산타클로스의 등장. '어~이'라는 구령 속에 힘차게 내려치는 북소리. 여호와의 군대 같은 힘찬 모습~!!



강렬한 의상과 함께 16명이 움직이는 율동은 과히 장관이었음을...



하모니카 (초급)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 은은히 흘러나오는 소리는 하모니카 소리였다. 7명이 연주하는 은은함은 매우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실버 댄스반 (초급)

빨간 티셔츠와 흰색 바지 의상은 열정적으로 율동하는 30여 송이의 붉은 장미였다.



사물반

고은 한복과 8명의 장구 소리는 관객의 어깨춤을 절로 추게 한다.



클래식 기타반

9대의 기타. 열정과 신남을 잠시 잠재우던 '에스터 데이' 잔잔한 음률은 잠시 70년대로 관객을 몰고 갔다



오카리나

작은 악기 속에서 들리는 18명의 단원의 연주 소리는 노곤한 관객들에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소리였다.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하모니카 (중급)

역시 중급 단원으로써 손색이 없는 19명의 연주 'You raise me up' 은 왠지 지나온 시간을 잠시나마 회상케 하는 연주 었다.



아코디언

초등학교 시절 풍금 소리를 연상케 하는 아코디언 소리는 가슴속에 푸근함을 담아주는 연주이다.



몸 찬양

12명의 각양각색의 한복과 머릿수건, 단아한 동작 하나하나,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 찬양과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들의 영혼을 울렸다.



합창반

은퇴한 권사님들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찬양의 율동을 연습하는 동안 70여 년 전 유치부 시절로 돌아가며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는 30명 권사님의 모습에 절로 신이 나는 광경이었다.

개강일 : 2020년 3월 4일(수) 예정.

평생대학 찬양대원 모집 : 1948년생~1949년생
(찬양대 봉사한 분 및 찬양 은사가 있는 분)

문의 : 지휘자 송봉혜 권사 (010-8639-4597)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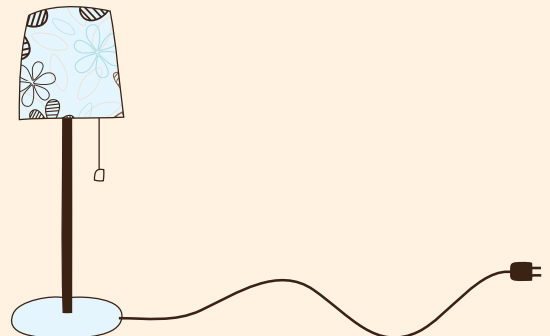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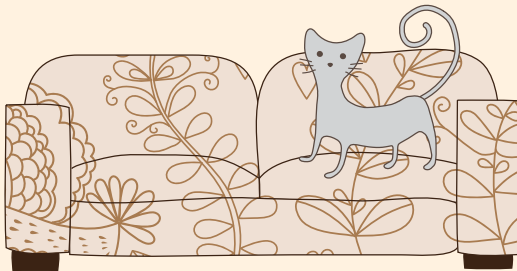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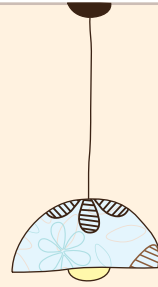
제 삶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은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영향으로 기독교생반 동아리 활동을 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애쓰는 분들을 보며 전도는 왜 하는 걸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하지만 단순한 궁금증에서 그쳤을 뿐이지 그 안으로 더 다가가고자 발걸음을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원했던 직업적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돌

아오는 결과는 저에게 늘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자신 있는 척, 관찮은 척, 당당한 척했지만, 끝까지 잘 해내고 싶은 마음만 앞섰을 뿐 저는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저를 포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이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며 어느새 이것이 타당하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첫 직장과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던 시기에 오랜 시간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지인의 전도로 이번 여름, 영락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현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는





데, 두려웠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신앙성 장반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순간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를 채찍질하기만 했던 지난날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준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갈보리찬양대가 전해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였습니다. 찬양을 듣는 내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차며 감사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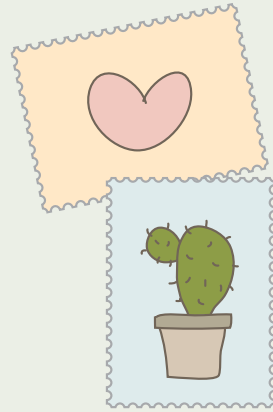
내 마음을 아시는 분도,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며 힘을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한평생 소외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처럼,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간호하고 돌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 속에서 주며 행복해하고 낮아지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묵묵히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이미나 성도
동대문·중랑교구

노숙인에게 뽀뽀하고 평평 십자가 예수님 떠올리며 ‘서울역 전도’ 다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대각성 운동을 맞아 부끄러운 마음과 복음에 빛진 마음을 담아 저의 작은 사역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서울역사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노숙인께 “예수님 믿으세요”하며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옆드려 계시던 한 분이 갑자기 심하게 욕하면서 저의 얼굴 쪽으로 뽀뽀한 주먹을 피하지 못해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순간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머릿속으로 ‘한 쪽 뽀뽀를 맞으면 다른 쪽 뽀뽀를 들이대서 맞으라’는 성경 말씀이 스쳤습니다. 다시 씩씩하게 걸어가서 다른 쪽 뽀뽀를 들이대며 당당하게 “아저씨!! 이거 드시고 예수님 믿으시라는데 왜 때려요?”라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욕만 하시고 다시 힘없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드시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함께 온 분들에게 가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겪어본 수모와 수치에 치를 떨며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수

모와 수치를 느끼셨을까?’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저녁에 갑자기 서울역의 노숙인들께 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계절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바나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노숙인들을 향한 사역이 차츰 양말, 의류 등으로 바뀌었고,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던 노숙인들은 이제는 순한 양처럼 온순한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사비로 물품을 준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전도부에서 양말을 지원해 주셔서 좀 더 많은 분에게 물품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으로 감동하신 분이 간식과 의류를 지원하셔서 더욱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서울역에 가기 위해 택시에 짐을 싣고, 운전기사님께 양말을 드리면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라고 말문을 여니 그 기사님은 “마침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고맙다”라며, 제가 전하는 복음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역 노숙



“그 어떤 차별없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

인들에게 전도하러 간다고 말씀드리니 기사님도 거기서 며칠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재기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하며, 차 트렁크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손수 다 기쁘게 꺼내 주시며 응원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다른 교회는 한두 번 오다가 거의 안 오는데 영락교회는 변함없이 와서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억에 남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참 뿌듯하고 힘이 됩니다. 그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보면, 저 또한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대각성 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서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을 붙잡고 시작한 이 일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주님께서 심어놓은 생명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도 모두 심겨 있다고 생각하며, 저도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품어 나가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노숙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무섭고 사납다고 느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의 마음도 꽤 부드러워졌고, 이제는 함께하는 든든한 동역자도 있어서 힘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점차 범위를 넓혀서 을지로 지하 통로, 시청 앞에도 나가곤 합니다. 교회 각처에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만남**



황정숙 권사
용인·화성교구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감사와 은혜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한두 번 친구 따라 교회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믿음 없는 남편에게 예수 믿기를 약속받고 결혼했습니다. 벌써 43년 전의 일이네요. 마지못해 주일 성수만 하던 남편이 말씀을 통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공부반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며 제직 부서에서 섬기는 일에도 참여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 남편이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 결혼하고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댁 식구들이 지금은 모두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생명대각성 운동을 맞아 삶의 현장에서 저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가장 첫 단계라 생각하고, 제가 처한 삶에서 전도 여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면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으리라 생각하고 함께 섬기던 세 분의 남자 집사님과 권사님 몇 분이 명동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동 노방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명동에서 전도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으며,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찌나 싫고 참여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함께 노방전도 하기를 강력히 권한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의 간곡한 부탁에, 한 번만 가보겠다고 따라나섰던 것이 그만 지금까지 30년째 매 주일 명동에 나가게 된 사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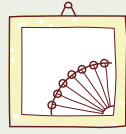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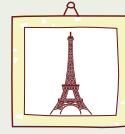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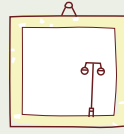
초창기에는 전도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지만, 그때는 인근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해 파출소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한 마음으로 이곳, 저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명동 입구의 정해진 장소에서 악기와 앰프를 설치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범택시 기사님은 전도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차를 먼저 세워두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자리를 내주시기도 합니다. 주변 상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일의 일입니다. 전도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중에 어떤 남자가 와서 저에게 돈을 주시며 음료수라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사양하자 자신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잠깐 방문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며 은혜받았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전도 대원 40여 명이 기도와 찬양과 전도사님의 설교에 힘을 얻고 전도 현장으로 향합니다. 전도 현장은 영적 싸움터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전도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전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혜자 권사
인천교구

삶에서 체험하는 전도의 기쁨



먼저 생명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20일 기도대각성 운동이 끝나갈 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전도하는 삶의 기쁨을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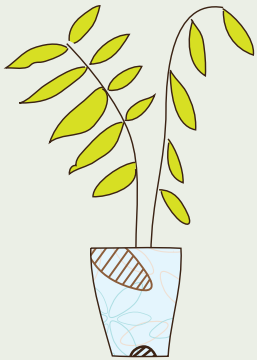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저에게 어느 날은 주님께서 옆 자리에 앉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오른쪽·왼쪽 번갈아가며, 내리면 또 사람을 보내 주셔서 4명에게 전도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는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날마다 출근할 때는 전도지와 비타민을 먼저 챙겨 집을 나서고, 집에 있는 날에는 일부러 마트에라도 가면서 한 영혼에게 전도하

는 일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신기하기도 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많은 전도자가 체험하는 영혼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 전도지와 비타민을 드리며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작은 성의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전철을 타면 어르신들께 사랑전도지와 비타민을 드리고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전도지와 비타민을 드리면서 느끼는 건 '아직은 전도할 만하다' '아직은 영락교회의 이름이 영향력이 있구나!'였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 후 카톡 전도방에서 은혜 나눔을 지속합니다. 한 줄 간증문처럼, 전도 후 은혜 나눔은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분들의 전도 방법도 배우는 중에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속하기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도, 한때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더라도, 전도하는 동역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기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쉽지 않음을 오랜 시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동역자들과 함께라면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하겠지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전도훈



정선화 성도
강북·도봉교구



전도자가 체험하는 영혼 구원의 기쁨과 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런 수료와 전철 전도 경험이 있었지만, 전도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제게 생명대각성 운동과 주변에 깨어있는 귀한 전도자들의 삶이 잠자고 있는 제 영혼을 깨워서 다시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영생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핵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1년 전부터 교회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출석을 미루고 있는 동료 언니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냐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자훈련을 받고 점심시간에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석했지만, 결혼 후 시작한 직장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더없이 기쁩니다.

얼마 전에는 83세이신 외삼촌께 복음을 전하자 외삼촌께서 어렵게 “아멘”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외삼촌은 인간적으로 성공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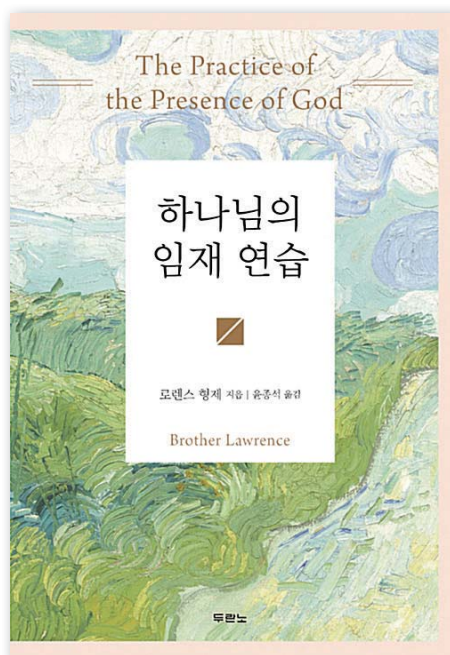
이지만 주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가 많았음에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의 부담으로만 품고 있었던 외삼촌께 복음을 전하고 나니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인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시는 영락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크나큰 질문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 영혼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징계였음을 깨닫고 주님의 방법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삶,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던 제게 주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다시금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사랑으로 눈을 뜨는 훈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것이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단순하나, 뜨거운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한 이 기도문은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다. 유명한 영성 고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살았던 평신도 수도자였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도, 권위 있는 성직자도 아니었지만, 그가 남긴 글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명과 도전을 주고 있다. 그러면 로렌스 형제란 인물은 누구이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어떤 책인가?



- 로렌스 형제 저, 윤종석 역(두란노, 2018)

1. 로렌스 형제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 또는 로렌스 수사로 알려진 그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Nicolas Herman)이다. 그는 1614년 당시 로렌느(Lorraine) 공국의 영토였던 에리메니(H rim nil)(현재 프랑스 동부지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책이 매우 유명한 것에 반해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사후 이 책을 편집해서 출판한 조셉 드 보포르(Joseph de Beaufort)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전부다.

보포르에 의하면, 니콜라는 경건한 부모 아래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늘 본이 되는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아들의 교육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릴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14쪽)

-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였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교훈들만을 골라서 심어주었다”(140쪽). 이러한 영향 아래 니콜라는 열여덟 살이 되는 해에 겨울의 벌거벗은 나무를 보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세상을 온전히 등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아직은 그를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했다.

청년이 된 니콜라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 입대, 로렌스 공국의 군인으로 ‘30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30년 전쟁’(1618~1648)은 독일을 무대로 신교와 구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매우 처참한 전쟁이었다. 니콜라는 참전 후 곧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스파이 혐의로 교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담대하고 솔직한 진술로 석방된다. 하지만 21세가 되던 1635년, 스웨덴과의 랑베르빌러(Rambervillers) 전투에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전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니콜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상의 나라를 위한 군인이 아니라 “거룩한 직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서 전투하는 일에 종사”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141쪽). 그 후 주님께 참되게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 걸겠다는 굳은 결심과 거룩한 열망으로 잠시 광야에서 은둔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26세인 1640년, 파리에 소재한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 평신도 수도자로 입회했다. 그는 신학 교육을 받을 만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1642년에 평수도자로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로렌스(로랑)’(Laurent de la Resurrection)란 별칭을 얻었다. 이후 수도원의 부엌에서 약 백여 명의 수도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맡아 15년 동안이나 섬겼다. 그러나 다친 다리로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오가는 것이 어려워서 1657년에는 신발 수선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살다가 1691년 2월 12일, 향년 7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2.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어떤 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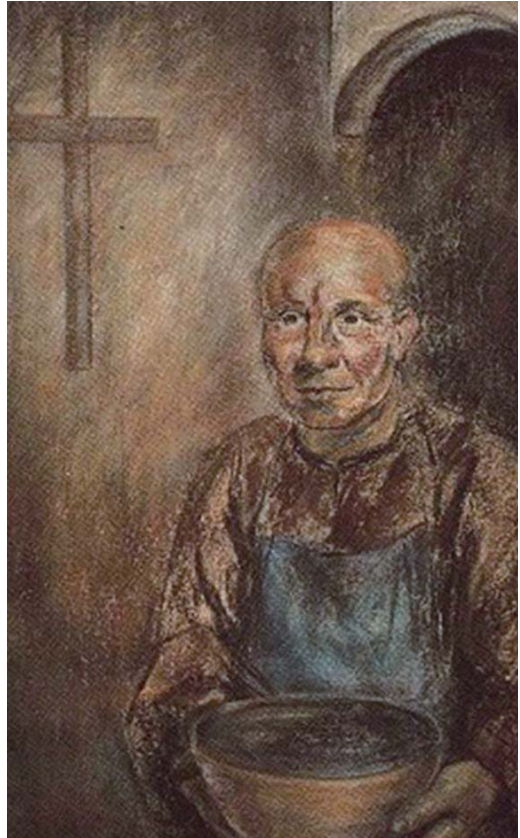
원래 로렌스 형제는 책을 저술해서 출판할 의도가 없었다. 그런데 그의 깊은 영성과 인품에 대한 소문을 들은 노아유(Louis Antoine de Noailles) —그는 이후에 추기경이 된다—가 수도원장 조셉 드 보포르에게 그를 만나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보포르는 1666년 8월 3일과 1667년 11월 25일 사이에 그와 네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로렌스가 쓴 편지들도 필사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노아 유의 권유로 로렌스의 사후 책으로 출판되었다. 원래 이 책은 프랑스어로 기록되었는데, 불어판은 1710년에 마지막으로 출판되었고 이후 영어로 번역되어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게 된다. 이 책의 애독자 중에는 감리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웨슬리(John Wesley)와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이자 저술가인 토저(A. W. Tozer)가 있다.

이 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조셉 드 보포르가 로렌스와 나누었던 대화들, ② 로렌스의 편지들, ③ 그가 남긴 잠언들, ④ 보포르가 쓴 로렌스의 생애. 이처럼 이 책은 체계적인 집필 계획을 갖고 쓴 작품이 아니라 자료들을 모아 놓은 것이어서,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지만 로렌스 형제의 단순한 삶과 영성을 반복적으로 조명하며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책의 한국어 제목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영어 제목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을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제목만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 연습’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에선 ‘연습’이라는 말이 실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지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 임재 연습’은 실제와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임재 연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다.

책의 제목처럼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훈련하라는 것이다. 로렌스 형제에 의하면,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110쪽).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124쪽),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막힘이 없이,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뜻한다”(110쪽).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대화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한가운데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126쪽). 꼭 교회나 기도실이 아니라라도 일상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을 예배 처소로 만들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혼의 눈, 곧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 처음에는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순전하고 사랑에 찬 시선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세.
인생의 즐거움은 물론 고통까지도 말일세.(100쪽)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니(130쪽), 지금 첫걸음을 내딛으라고 로렌스는 권면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로렌스는 “하나님의 임재는 영혼의 생명이요 양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127쪽)고 힘주어 말한다. 그래서 로렌스가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믿음이다. 로렌스는 가톨릭 수도회에 속해 있었지만 마치 “오직 믿음으로”를 외친 마르틴 루터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을 오직 믿음뿐입니다”(163쪽)라고 고백한다. 그는 회심 초기 자신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완전히 용서 받기 위해선 자신이 뭔가 해야 할 것처럼 느꼈지만, 믿음으로 메마르고 어둠의 시기를 겪은 후에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비록 로렌스는 수도원 담장 안에 사는 수도자였지만, 주방과 신발 수선실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속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 보포르에 의하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

나눔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166쪽).

이처럼 로렌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허드렛일이든 상관없이 그는 프라이팬의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고, 그 일도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주방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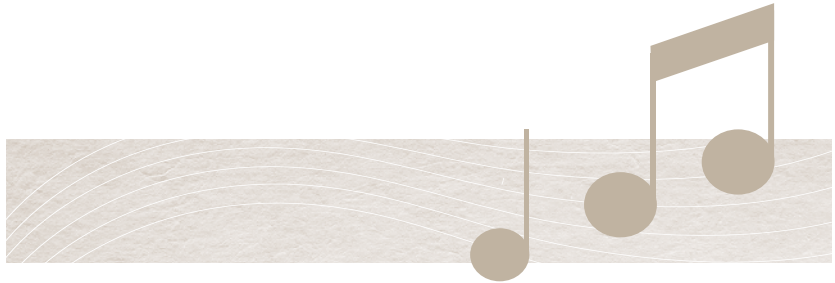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임재하시도록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연습’은 눈을 뜨는 훈련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 책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15:9), 모든 것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남**



권혁일 목사 *
강동·송파교구
영락수련원, 영락기도대

시각장애를 이겨낸 찬송가의 어머니

- 화니 크로스비(Fanny Crosby)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인애하신 구세주여,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너희 죄 홍악하나….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들이다. 이 찬송들의 가사는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화니 크로스비(Fanny Crosby, 1820~1915)가 썼다. 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찬송가 중 31, 40, 144, 176, 240, 255, 279, 288, 361, 380, 384, 391, 417, 435, 439, 454, 498, 531, 532, 540, 608, 615장 등 22곡이 화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작품이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주 퍼트남의 신앙심 깊은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생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감기로 인해 눈언저리가 부어올랐는데, 약사는 아기에게 겨자 습포제를 눈에 바르도록 처방했다. 가정부가 겨자를 뜨겁게 해 눈에 발라주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크로스비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

크로스비의 어린 시절, 일을 나가야 했던 어머니를 대신해 그녀의 할머니 유니스(Eunice Paddock Crosby, c. 1778~c. 1831)는 크로스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자연의 질서를 소개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영감을 심어주었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숲, 해와 달과 별들, 동물들과 식물들, 무지개의 일곱 빛깔까지도 여러 비유로 설명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크로스비는 마음으로나마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에게서 신앙심과 자존감을 배운 크로스비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인생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을 어릴 적부터 지니게 되었다.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1847년 맹인학교를 마친 크로스비는 모교의 교사가 되어 11년간 영문법과 수사학, 라틴어와 미국 역사를 가르쳤다. 1850년 크로스비는 어느 부흥 집회에서 아이작 왓츠의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부르던 도중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값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구절에 크게 감동하고 평생을 왓츠와 같이 찬송시, 즉 찬송가 가사를 쓰기로 결심했다. 이후 그녀는 당대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와 함께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복음 간증 사역자로, 복음찬송을 부르는 가수로서 찬양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고, 항상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데 열정을 다했으며, 당시의 대통령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와도 교류했다.

크로스비는 생애를 통해 약 9,000편의 찬양시를 발표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시 한 편에 겨우 1달러 정도만 지급하여 그녀의 삶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항상 받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늘 가난과 함께해야 했다. 한번은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르는 사람을 보내시어 그에게 10달러를 기부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는 간증도 있을 정도다.

찬송 시인이자 자선사업가, 교사, 복음 간증 사역자, 복음송 가수로서 생을 살았던 크로스비 인생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그녀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항상 성경 암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고, 뜨개질로 목욕 수건을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했다. 또 그녀는 암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자신의 많은 시를 암기했으며, 찬송가도 거의 암기해서 불렀다고 한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기쁘게 했으며, 결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불행히 여기지 않았다. 놀라우리만큼 영적인 평안 속에서 삶을 누린 그녀는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으며, 그들을 위로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다. 그녀가 남긴 말 중 하나를 소개하면: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시각장애가 없었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크로스비는 1915년 2월 12일, 코네티컷 주 브릿지 포트에서 95세의 나이로 그토록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로 갔다. 그녀의 묘비에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가사가 적혀 있다.

1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2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3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in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Refrain)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

(통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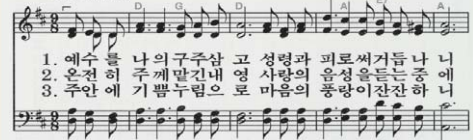
F.J. Crosby, 1873

하나님과 아담을 얻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장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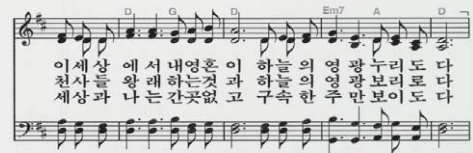
BLESSED ASSURANCE: 9, 10, 9, 8, REF.

P. P. Knapp, 1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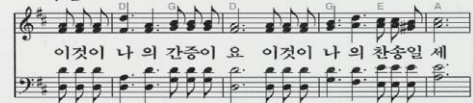
조금 느리게 ♩ 72



1. 예수 를 나의 구주 삼 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니
2. 온전 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3. 주안 에 기쁨 누림으 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 니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 는 동안 끊임없이 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 아멘

거룩한 성령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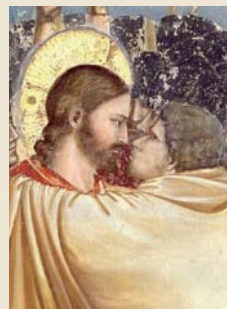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룟 유다, 배반자



복음서는 유다를 “예수를 판 자”(마 10:4; 막 3:19; “파는” 눅 6:16; 요 16:2)로 표현한다. 이 표현에서 ‘팔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팔아넘긴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그 표현을 “who betrayed him”(예수를 배반한 자)으로 번역한다.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배반했을까? 우선 그는 위 표현 그대로 돈을 받고서(마 26:15) 예수를 팔아넘겼다. 그리고 그 배반의 현장에서 예수께 입맞춤하기까지 했다. 뒤에서는 돈을 받고 현장에서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으로 배반한 것이다.

그러면 왜 배반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재무를 담당하는 자리를 이용해서 공금을 빼돌린 “도둑”(요 12:6)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 배반했다는 것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여 다른 설명이 등장했다. 그중에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배신감 때문에 팔아넘겼다가, 그렇게라도 해서 자극을 주면 로마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를 곤경에 몰아넣었다는 설명이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이 모두 본문에 묘사된 유다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설명이다.

그러면 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가질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자 가룟 유다는 “왜 그 값비싼 것을 팔아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는데, 그것은 “가

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요 12:6) 때문이었다. 여기서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유다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위선과 탐욕만으로 그토록 악한 일을 저지러 수 있을까? 사실은 예수를 죽게 만든 바리새인들도 그랬다. 그들은 “외식하는”(위선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다]”(마 23:25). 이 위선과 탐욕으로 뒤덮인 마음이야말로 “마귀가…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을]”(요 13:2) 만한 곳이 된다. 그 결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행 1:25) 배반과 죽음의 자리로 옮겨간 것이다.

배반자 유다를 생각하면 그의 비참한 최후(행 1:18)가 뇌리에 떠오르지만, 그런 만큼 진실한 이들이 더욱 생각한다. “하나님의 온 집에” 진실했던(히 3:2) 모세,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전 4:2)임을 강조한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스에 응답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남**

연재를 마치며 : 12제자에 대한 글을 쓰기는 쉽지 않다. 이름만 나오는 제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설이나 추론만으로 자료의 공백을 메우곤 하는데, 이 글을 쓰면서 그런 방법을 피해도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소중한 기회를 준 『만남』에 감사드린다.

▶ 상영 장소 및 시간 : 50주년기념관 지하1층 소강당, 주일 오후3시

1월의 상영작



십계 (The Ten Commandments, 1956)

감독 : 세실 B. 드밀

주연 : 찰턴 헤스턴, 윌 브리너

상영시간 : 3시간 40분 등급 : 전체관람가

(상) 5일

(하) 12일



이집트 지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날이 번성해 가자 파라오는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인의 장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한다. 아들을 낳은 히브리 여인은 갓난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낸다. 마침 강가에 있던 파라오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여 모세라고 이름 지어 자기 아들로 키운다. 씩씩한 청년으로 자란 모세는 용감하고 품위 있는 성품으로 파라오의 사랑을 받지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람세스가 모세를 견제하여 모함하는 가운데 사건이 벌어진다. 1950년 할리우드 최전성기에 제작한 대형 영화. 당대 최고 배우들과 제작 규모가 지금 봐도 대단한 스펙터클을 제공한다.



19일

송 포 유 (Song for You, 2012)

감독 : 폴 앤드류 윌리엄스

주연 : 테렌스 스탬프, 젤마 아터튼, 크리스토퍼 에클리스톤,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상영시간 : 1시간 33분 등급 : 12세관람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초극정 주인공 메리언은 합창대회 오디션을 위해 연금술사(연금으로 술술 사는 사람들) 합창단에서 열혈 연습 중이다! 그런 와이프가 못마땅하고, 그녀의 톡톡 튀는 합창단 친구들도 골 보기 싫은 남편 아서를 두고 메리언은 세상을 떠난다. 메리언의 꿈을 이어받은 아서는 로봇보다 더 뽀뽀한 댄스, 고혈압으로 고음을 낼 수 없다. 본선 대회 당일, 1차 합격한 합창단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친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The Bucket List, 2007)

감독 : 로브 라이너

주연 : 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

상영시간 : 1시간 36분 등급 : 12세관람가

26일



가난하지만 한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살아온 정비사 카터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지만 괴팍한 성격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업가 잭. 공통점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을 법한 이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과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잭은 카터에게 함께 모험을 떠나볼 것을 제안한다.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여행이다. 영화 제목인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 등록일(10월 6일~12월 8일)

교구 : 70은 고등부, 77은 국제예배, 80은 대학부, 90은 청년부
구역 : 000은 가동록, 99는 보류, 888은 교육부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0월 6일	전춘실	10	058
10월 15일	김윤희	04	065
10월 20일	김달현	15	030
	조중건	17	049
	정태옥	11	065
	조명환	17	049
	유재균	18	010
	정길호	12	002
	배정환	03	029
	김상호	13	037
	이정자	16	028
	김종호	07	044
	이갑용	01	009
	양승용	18	034
	김서윤	06	012
	이지은	15	011
	장 진	09	029
	주격군	09	029
	송서림	10	000
	최윤성	04	024
10월 24일	정종숙	07	003
	김은유	15	002
10월 26일	이라온	05	021
10월 27일	이정강	04	002
	김정곤	13	034
	윤형구	01	014
	이결자	10	061
	이성희	04	076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0월 27일	이수미	09	042
	김민경	16	001
	이민하	10	035
	한지오	03	042
	이지섭	02	027
11월 1일	김득수	03	038
11월 3일	강경숙	18	000
	정남숙	07	014
	윤미영	10	051
	최수련	07	001
	김현욱	15	011
	박지훈	01	028
	김보미	11	055
	석나연	10	061
	우이든	06	040
	이지현	02	014
11월 10일	이종열	10	000
	이정웅	13	019
	김정순	10	000
	박정윤	01	000
	전정희	13	034
	유금현	14	000
	박연제	09	065
	이은실	09	065
	강혜련	10	000
	정재희	18	000
	박태윤	09	065
	박태영	09	065

등 록 일	이 름	교 구	구 역
11월 10일	선라온	14	001
	이하랑	13	044
11월 17일	이정열	07	001
	이인영	04	024
	김영철	04	067
	이영미	04	067
	배회숙	07	005
	김지영	07	014
	우현재	06	040
	이제아	06	031
	주용진	04	068
	장예림	16	003
	김아현	09	065
11월 24일	조무현	12	018
	이금례	07	031
	최애순	12	018
	유락선	02	054
	홍양자	02	049
	염순란	02	054
	지정숙	01	000
	유현민	10	000
	정진규	08	056
	조문경	12	018
	박연주	07	000
	박세웅	09	034
	김정빈	13	011
	이수인	07	016
	박하연	04	098
11월 29일	최태양	08	004

등 록 일	이 름	교 구	구 역
11월 29일	최태율	08	004
12월 1일	조영자	08	000
	이정림	08	000
	권명희	01	000
	리해근	18	000
	박희순	18	000
	홍서정	09	037
	김석원	04	022
	표창용	16	000
	박성화	10	000
	전은혜	06	047
	김규태	16	000
	백승호	15	000
	김성주	12	000
	이주영	08	000
	권 혁	11	055
	이재하	08	000
	김민서	13	011
	정지우	05	005
	안시현	05	053
	안하온	08	000
12월 3일	오예나	06	041
	이영조	12	000
	이은숙	12	000
	김민서	17	014
	이서연	60	888
	박소연	60	888
	최민학	60	888
	이민서	02	005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2월 3일	이진서	07	028
	유이진	04	031
	유이신	04	031
12월 6일	오나은	02	038
12월 8일	이복순	10	000
	정복신	13	000
	고세호	01	000
	이경숙	04	000
	한영숙	04	000
	우석호	06	035
	홍은아	13	000
	장영진	07	000
	주진호	08	000
	송효근	05	000

등록일	이름	교구	구역
12월 8일	김영탁	14	013
	이준서	02	005
	이예서	02	005
	이현서	02	005
	김 울	01	007
	한지민	02	060
	김나윤	01	019
	전시아	11	002
	김찬혁	09	057
	정은우	10	021
	오태준	13	011
	오민준	13	011
	여서준	06	075
	한예담	06	043

세례·입교를 축하합니다

세례·입교 세례·입교일(12월 8일)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강기태	06	074
	김한나	08	052
	이문정	11	033
	신지현	07	012
	김영훈	06	060

신급	이름	교구	구역
입교	변아현	01	014
	조윤성	18	029
	김예은	12	004
	김민재	13	017
	박소정	09	057

신급	이름	교 구	구 역
입교	조서연	16	015
	탁은찬	04	037
	방윤서	14	041
	김연수	03	040
	김승엽	03	009
	김한수	10	031
	김휘현	05	056
	이승미	01	006
	황하연	14	047
	조예현	14	055
	박민석	14	013
	장지성	17	020
	봉예슬	04	033
	여광수	15	040
	백창환	04	020
	정하진	09	015
	이영우	05	052
	채나현	03	004
	김기태	12	023
	장예준	16	004
	감지민	11	030
	송예은	16	040
	이소연	12	006
	김태빈	13	030
	윤형식	13	016
	이예인	11	011
	이예진	11	012
	김주영	16	018

신급	이름	교 구	구 역
입교	최사랑	12	024
	어유현	04	068
	조나단	11	057
	이원호	06	047
	조정윤	02	036
	최수환	07	032
	김영채	07	007
	배서현	16	053
	유동일	11	025
	김재우	02	075
	이한솔	09	005
	유현서	06	011
	김세원	13	029
	김연수	18	021
	이성호	18	021
	송요한	06	063
	송태건	12	045
	김현민	07	022
	류상용	06	027
	조희은	06	027
	이진주	05	050
	성유진	80	888
	이민서	02	005
	이진서	07	028
세례	박근성	16	005
	박상규	08	066
	유임순	16	005
	이준형	02	044

신급	이름	교 구	구 역
세례	임종호	06	071
	이세현	06	032
	김은빈	12	012
	한예일	05	012
	곽성국	08	010
	유경아	04	078
	김세훈	01	029
	이다인	02	025
	문소이	11	064
	김동연	04	052
	이시은	06	032
	황혜정	11	055
	서은숙	10	070
	김은숙	10	014
	이정근	10	014
	이진아	10	014
	오인선	17	042
	이준혁	11	038
	권경덕	08	070
	손정민	08	070
	고성환	12	030
	임순옥	05	030
	이진우	90	888
	강은혜	06	057
	이지민	13	015
	김지윤	10	042
	이범자	11	035
	이원경	80	888

신급	이름	교 구	구 역
세례	김정훈	09	037
	손현주	16	031
	전미영	04	014
	최정원	16	018
	김동휘	10	051
	안명숙	14	050
	김시춘	07	029
	정영숙	12	040
	박경빈	03	046
	임계인	08	073
	김경미	06	068
	이수진	01	022
	홍성진	06	017
	안삼분	06	017
	박혜진	07	031
	한성희	11	007
	이우철	06	055
	신동호	04	063
	유춘성	07	016
	전경예	11	061
	홍재성	90	888
	최민학	60	888
	김준영	60	888
	박소연	60	888
	이서연	60	888
	신광훈	60	888
	유이진	04	031
	유이신	04	031

영락교회 창립 74주년 행사 열려

- 12월 1일 장로·집사 임직예식, 11월 24일 창립기념음악회 등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영락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로·집사 임직예식, 창립 74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 지난 12월 1일 김운성 목사는 디모데전서 3장 14~16절을 본문 삼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라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영락교회,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영락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제47회 장로·제48회 집사 임직예식이 있었다. 임직예식의 설교를 맡은 서울노회장 권위영 목사(서울숲교회)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지도자(민 27:16~20)’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새로 임직을 받는 향존직들과 영락 성도들에게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직예식에서는 2019년도 향존직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장로 피택자 1명, 안수집사 피택자 17명이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교회의 덕이 되어 유익한 종이 될 것을 결단했다.

한편 지난 11월 24일(주일) 오후 5시에는 본당에서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음악회가 베들레헴찬양대 주



관으로 본당에서 열렸다. ‘저녁기도로 드리는 교회 창립 감사예배’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음악회는 74년 전 이 땅에 영락교회를 세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 부르심과 응답을 테마로 진행됐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장로 장립 및 집사 안수

제47회 장로(1명)



조성환

제48회 안수집사(17명)



한요셉



유병천



이응준



이형일



김건철



김정훈



매재원



이영진



황규도



최익준



윤창완



이두희



정일천



김재원



조지형



양동철



이승석

사회봉사부, 성탄과 연말 맞아 사랑의 봉사 활동 -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 김치·라면·외투 등 전달



사회봉사부(부장 나선훈 장로)는 성탄과 연말을 맞아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따스한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전달했다. 먼저 12월 10일(화) 교회 마당에서는 사회봉사부 임원진과 중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 전달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사회봉사부가 불우이웃을 돕고자 매년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협력해 펼치는 정기적 활동으로, 이번에 전달된 500가구분의 김치는 중구 11개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이어 11일(수)에는 중구청 사회복지지원과를 통해 라면 3백 상자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중구청 청사를 방문한 사회봉사부 임원들은 중구청 사회복지친화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2020년에 전개할 불우이웃 돕기 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중구청측은 지역 내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에 그동안 영락교회가 적극 참여해준 것에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부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숙인들과 보육시설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활동도 펼쳤다. 종로구 창신동 등대교회가 운영하는 노숙인 급식시설 2곳을 방문, 노숙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급식 봉사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도록 겨울 외투와 양말을 전달했다. 이어 보육시설인 강남드림빌을 방문해 급식 봉사와 함께 성탄 선물을 전달했다.

사회봉사부가 성탄과 연말을 맞아 펼치는 나눔의 봉사 활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탄 헌금을 통해 조성된 재정으로 진행된다.



제공 사회봉사부

서른 살을 맞은 베드로부,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베드로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7일(토) 오후 6시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서른, 다시 주님 앞에’를 주제로 흠커밍 파티를 겸해 드린 이날 감사예배는 지난 30년간 베드로부를 거쳐 간 선배들과 교사와 교역자, 학부모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베드로부 찬양팀인 ‘로벤’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베드로부 출범 당시 지도교사였던 김승길 목사가 대표기도를 맡았으며 김운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너는 베드로라(마16:17~18)’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사람은 시몬으로 출발해서 베드로가 되기 위한 거룩한 여정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실패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도약해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베드로부 30주년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감사와 추억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 정다운 기자 사진제공 베드로부

탄생의 은혜를 찬양하라! 제1회 할렐루아찬양대 토요음악회



할렐루아찬양대(대장 이영문 안수집사)의 토요음악회가 지난 12월 7일(토) 오후 6시 선교관에서 있었다. 지난 3월 6일(수) 창단 후 매주 수요일부 기도회 찬양을 담당하는 할렐루아찬양대의 첫 번째 음악회였던 이번 공연에는 안정현 선생의 지휘와 박미라 선생의 반주 아래 110여 명의 찬양대원이 무대에 올랐다.

대림절 기간을 맞아 예수의 성탄을 기억하는 동시에 할렐루아찬양대 출범 첫해를 기념하며 ‘탄생의 은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찬양곡 ‘주의 이름 앞에’를 시작으로 솔리스트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오보에 연주, 그리고 ‘칼트리오’의 협연이 이어졌다.

※ 할렐루아찬양대 남성 대원 모집 안내

예배를 통해 회중과 함께 찬양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남성 대원(테너·베이스)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연습시간: 수 09~10:15, 수요일기도회1부 직후~1:30 문의: 음악부 2280-0197

제공 공은경 권사(할렐루아찬양대 총무)

2019 하반기 금요권찰공부 마무리

2019년도 하반기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종강예배가 지난 12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18개 교구의 구역장과 권사, 권찰들을 비롯한 구역 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드려진 종강예배는 박규성 목사 사회로 시작되어 목양부장 김재완 장로의 기도와 여전도회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졌다.

이날 종강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엡4:17~24)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낡아지는 겉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에너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예배 후반 참석자들은 박규성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를 한 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됩니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2019년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마음이 짐을 결단했다.

취재 정다운 기자

2019 하반기 전도훈련학교 종강 - 34기 토요일 136명, 12기 화요일 49명 수료

전도부(부장 박순덕 장로) 전도훈련팀에서 주관한 34기 토요일전도훈련과 12기 화요일전도훈련이 지난 12월 7일(토)과 11월 26일(화)에 각각 수료식을 하고 하반기 교육과정을 마쳤다. 13주 과정으로 진행된 하반기 교육과정에선 토요일반 136명, 화요일반 49명이 수료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김운성 목사가 참석하여 말씀을 통해 전도사역과 전도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수료생들의 생생한 전도 간증이 이어졌다. 전도훈련학교에서 진행되는 전도폭발훈련은 친교와 전도, 제자훈련, 건강한 교회성장을 목표로 하는 초교파적 훈련으로 매년 상반기(3월 개강)와 하반기(9월 개강)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2020년도 상반기 전도훈련학교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상반기 전도훈련학교 일정

화요일전도훈련학교(13기) 3/3일~6/2일(13주) 오전 10:20~오후 1:00

토요일전도훈련학교(35기) 3/7일~5/30일(13주) 오후 2:40~오후 5:30

문의: 전도부 02)2280-0318, 화요팀장 010-3354-3835, 토요팀장 010-9045-6717

제공 이광소 집사(토요일전도학교 총무)

2020년 영락교회 달력 발간...벽걸이, 탁상 2종



홍보출판부는 새해 교회 표어인 '이 때를 위함이라(에스더 4:13~14)'를 테마로 성도의 신앙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20년도 교회 달력을 제작하여 지난 12월 6일(금) 연합권찰공부 모임을 통해 교구별로 배포했습니다.

달력의 표지는 '이 때를 위함이라'는 표어에 걸맞도록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했습니다. 월별 사진들은 예배와 선교, 찬양, 성도의 교제, 그리고 다음세대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주일예배 축도 사진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1월 사진을 필두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새벽기도회, 교육부서의 다양한 활동, 부활의 기쁨, 북한선교대회, 인도네시아 진성학원 영락관 준공식, 2019년 간증주일 광경, 그리고 서울광장 성탄 트리 점등 사진 등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 안팎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역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2019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달력에도 월별 암송 말씀을 게재하여 성도들의 말씀 묵상을 돕고자 합니다.

달력 제작에 도움을 주신 관련 제작부서의 봉사자들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교회 달력이 걸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김정훈 안수집사(홍보출판부 홍보위원장)

항존직 15명 은퇴 (2019년 12월 29일)

은퇴장로



박순태(원로장로)



임종술

은퇴안수집사



공명섭



김용석



강용진



황진규



이진수



임상훈



정치운



윤석면



이근영



전동균



유순식



이기열



이성수

박순태 장로, 원로장로 추대

박순태 장로가 지난 12월 15일(주일)에 열렸던 공동의회에서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박순태 장로는 1996년 12월 본 교회 28회 장로로 장립되어 2019년까지 23년간 시무장로로서 교회를 섬겼으며, 제191~192회기(2016.10~2017.10) 서울노회장을 역임했다.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를 위하여 오랜 세월 헌신봉사하신 은퇴제직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가입 자격** : 2019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에 한하여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가입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28일(주일)로 마감합니다.

▶ **가입 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 (은퇴제직상조회)

▶ **가입 절차** : 수납창구에 비치된 가입원서를 수령하여 본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① 회원자격:〈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헌신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협동 포함)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며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소정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② 회비 납부의무:〈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가입비 : 10만원(1회만 납부)
- 연회비 : 신규가입 시 2만원 그후 매년 1만원
- 보조금 :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원

③ 수혜사항:〈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부의금: 6,000,000원 지급(의무이행 시 최대 6백만원 일시지급)
- 만 88세 이상 정회원은 보조금 납부의무를 면제함

기타 문의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6시까지 ☎ 02)2280~0238〉

회장: 김충손 장로

2019년 12월 31일

교역자 이임 | 부서담당목사 4명, 전임 전도사 1명



임현우 목사

2014년 1월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후 2016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는 동안 고양·파주교구와 노인대학을 시작으로 설악산수양관, 고등부, 4남·여선교회, 성남·분당교구와 친교부, 갈릴리찬양대를 맡아 사역했다.



임대순 목사

2015년 1월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후 2017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는 동안 관악·동작·금천교구와 IT미디어부를 시작으로 인천교구와 중등부, 학원선교를 담당했다.



이대혁 목사

2016년 1월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중등부, 교육부(행정)를 담당했다.
2018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아동부(소년부)를 맡아 사역했다.



장이삭 목사

2016년 1월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서대문·은평교구와 목회행정을 담당했다.
2018년 4월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국제예배부(IWE)를 맡아 사역했다.



이요셉 전도사

2018년 1월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고양·파주교구와 사회봉사부를 맡아 사역했다.

영락역사자료

2020년 한경직 목사 20주기



1984년 2월 11일 남한산성
우거처에서 한경직 목사가
방문객들에게 새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

11월 기증현황(5건)

기증자	기증일	기증사료
조만옥 목사 (해외 거주)	11/3	- 오! 예수 그리스도 골든디스크 액자 1건
전인호 은퇴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11/3	- 1972년 신년예배 순서지 1건 - 1972년 김상도 권찰 감사장 외 상장류 1건
최성은 안수집사 (마포·영등포교구)	11/17	- 1972년 1월 1일 공로장로 최영준 추대장 1건

사료를 기다립니다

1. 2000년대 이후 장로장립, 집사안수식 순서지
2.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제직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등

문의 : 역사자료실 ☎ 02)2280-0357

2020년 선교부 자치단체

제1남선교회

회 장 : 이흥노 장로*

부회장 : 모연섭 * 안태운 * 양성환 안수집사

제2남선교회

회 장 : 윤의성 안수집사

부회장 : 임우섭 (수석) 차영균 김철승 윤창완 안수집사

제3남선교회

회 장 : 송경훈 집사

부회장 : 조원형 김신희 김형훈 집사

제4남선교회

회 장 : 최강원 집사

부회장 : 한규한 집사

제1여전도회

회 장 : 구성숙 권사

부회장 : 황숙희 박영희 권사

제2여전도회

회 장 : 강신재 권사

부회장 : 전현숙 박석남 권사

제3여전도회

회 장 : 현선경 권사*

부회장 : 여현수 권사* 이진아 집사*

제4여전도회

회 장 : 박유리 집사

부회장 : 박수경 유정은 집사

부부선교회

회 장 : 김지훈 집사

부회장 : 이하나 집사

청년선교회

회 장 : 황성수 집사

부회장 : 김성국 박다정

* 유임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12월호 정답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미로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경자년 새해에 예찬이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찬이를 도와
복잡한 길을 헤치고 다 함께 숨겨진 복을 찾아보세요~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말씀의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짜 윤진경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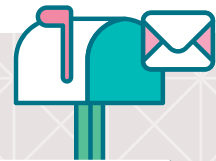
목회력

1月

1일(수)	신년예배
1일(수)~3일(금)	신년기도회
5일(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11일(토)	교육부 신년교사기도회
12일(주일)	고등부·대학부·청년부·자유인·국제예배 성찬, 권사 임직예배, 제직회
19일(주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심방준비회
26일(주일)	사회봉사주일

교육부 겨울사역

중등부 겨울수련회	1월 17일(금)~19일(주일)	영락기도원-영락교회
고등부 겨울수련회	1월 16일(목)~18일(토)	영락교회
대학부 겨울수련회	1월 29일(수)~2월 1일(토)	영락교회



편집장 레터

“2020년 광명의 아침을 새롭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주옵
시고, 금년 한 해도 『만남』의 모든 것이 능력주시는 자 안
에서 온전히 만들어 질 수 있게 하소서!”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신시내티에
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들이 밤낮 노동자 노
릇을 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5년 전 나는 일개 품
팔이 노동자였습니다. 어제의 품팔이 노동자가 오늘은 자
수성가한 노동자가 되고 내일은 남을 부리는 주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과 생활 태도의 개조, 이것이 평등사
회의 질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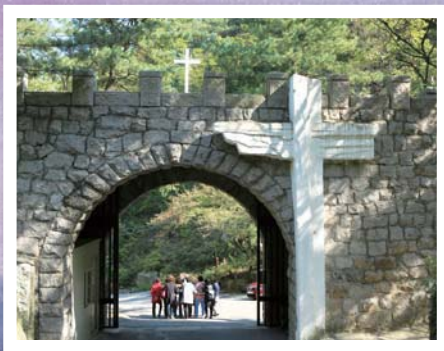
제자리 걸음마를 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예수
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
고데모에게 당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3:5)고 하
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태의연(舊態依然)함으로부터 벗어
난 새롭게 다듬고 가꾸어진 모습을 원하십니다.

영락의 『만남』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로부터, 새로운
결심으로 도전하여 새롭게 거듭난 트렌드로 나아갈 것입
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편집장 이동훈

2020 이 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신년 기도회 일정

일 자	시 간	장 소
1월 1일(수)	오후 7시	영락기도원 ☎ (02)997-1004
1월 2일(목)	오전 6시,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	
1월 3일(금)	오전 6시,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폐회예배)	

※ 폭설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토(Giotto di Bondone), 프레스코화, 200×185cm, 1304~6경

유다의 입맞춤

The Arrest of Christ

원근법(perspective), 단축법(foreshortening), 입체묘사법(modeling)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조토의 그림은 서구 사실주의 회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 그림은 그가 이탈리아의 파두아에 있는 스크로베니교회의 벽에 그린 『그리스도의 생애』 중 15번째 그림인데, 그림의 메시지는 다음 두 가지 아이러니를 통해 선명하게 제시된다. 우선, 예수께서 친구라고 부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으로 배신하는 장면을 그림으로써,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있는 후광과 비슷한 색을 한 배신자의 노란색 외투로 그 장면을 부각시킴으로써.